

전북도 산업지형 다시 그린다...경제총조사 돌입

내달 도내 14만개 사업체 대상 조사 AI·로봇·무인매장 신규항목 포함 온라인·방문 방식 병행 참여 가능

전북도는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

조사로, 지난 2011년 첫 조사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 여부, 외국인 종사자 수, 스마트공장·스마트농장 운영 여부, 무인매장 운영 여부 등 최근 산업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자료로 대체 가능한 항목을 적극 활용해 도내 전체 약 25만 개 사업체 가운데 약 11만 개 사업체를 조사해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약 14만 개 사업체다. 조사는 사업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온라인과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제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지

역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산업·고용·지역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철인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총조사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도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관계성 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경찰·상담·양방향 핫라인 구축 피해자 밀착 지원 보호 강화

전북도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내 경찰과 전문상담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에는 도내 15개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가 참여하며, 관계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재발 방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관계성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하거나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보복 우려와 심리·경제적 의존 등으로 추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경찰 개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피해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경찰이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가 함께 참여해 밀착 보호를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 피해자(B등급)는 전문 가정폭력상담소가 정기 상담과 심리치료,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체계는 기관 간 ‘양방향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소가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추가 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재발 위험성 조사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신속한 보호조치에 나서게 된다.

도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관계성 폭력은 보복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촘촘한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상담기관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선관위 “투표소 질서 방해 행위·용지 훼손 등 엄단”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경고 소란·용지 훼손 시 형사처벌 가능 특정 후보 지지·반대연동 금지대상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의 소란한 언동, 투표용지 훼손 등 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방해를 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입 소요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함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

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 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삼성·SK 200조 투자유치 새만금에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RE100 기반 글로벌 빅테크 유치 “20만개 일자리 창출” 강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손잡고 새만금에 300만 평 규모의 AI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총 2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을 단순한 공장 단지가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생산부터 AI 데이터 연산까지 한 곳에서 완결짓는 ‘AI반도체 올인원 생태계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첨단패키징·AI반도체 공장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기업이 함께 진출해 전북 항토기업들도 첨단 산업 밸류 체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공장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MS·구글·네이버·현대차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도 끌어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만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전력 △부지 △물류·융수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후보는 먼저 전력을 언급하며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RE100을 충족하지 못한 반도체는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에서 RE100 전력망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했다.

부지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은 약 300만 평 규모의 초대형 산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이 토지 보상과 규제로 수년을 허비할 때 새만금은 속도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200조 원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가 용인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300조 원”이라며 “AI반도체의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하면 새만금 200조 원은 결코 과한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전북 총인구의 10%가 넘는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전북에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저 이원택이 원팀으로 전북의 100년 성장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김관영, 군산 맞춤형 7대 공약 발표 “AI데이터센터·터미널 재개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금란도 항만재개발 등 비전 제안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무소속, 기호 7번)가 27일 군산을 찾아 군산 시민들을 위한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구축’,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재개발’ 등 7대 공약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군산 시민들이 가장 염원할 7개 공약인 △특수목적선(MRO) 선진화단지 구축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구축 △국립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새만금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증축 △금란도 항만재개발 초광역사업 추진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재개발 등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김 후보는 ‘특수목적선(MRO) 선진화단지 구축’ 공약을 통해 군산을 친환경, 스마트 조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조선 산업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선진화단지가 구축된다면 민·관·군 협력 기반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데 주목한 것이다.

이어 ‘군산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공약을 통해 새만금이라는 가능성



<사진=김관영후보측>

의 땅을 활용, 국내 최대 규모 GPU 클러스터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군산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서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객들의 첫인상인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화가 걱정되었던 군산 시민들을 위해 고민한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재개발’ 공약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성지인 군산에 걸맞은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공약을 통해 전국 10만 대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전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모 공간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는 방침

전북도,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시설·그룹홈 종사자 100명 참여 보호아동 돌봄 전문성 제고

전북도는 27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도내 아동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아동보호체계 내 특수육아 아동의 이해 ▲알기 쉬운 회계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호아동 이해와 회계·보조금 집행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보호 필요 아동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장애와 ADHD, 경계선 지능, 학대피해 등 심리·정서적 어려

움을 겪는 특수육아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계처리와 보조금 집행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현재 전북자치도에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총 63개 아동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65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도는 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아동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다. 이밖에 군산의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새만금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과 급증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증축’, 그

리고 준설토 투기장치의 방지된 유휴부지를 지역의 핵심 해양 거점으로 전환할 ‘금란도 항만재개발 초광역사업 추진’ 공약도 소개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수집심의위원 위촉

소장품 확보 심의 체계 가동
소장품 수집 단계별 추진

전주시는 27일 오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인 전주시립미술관 공정한 작품 수집 추진 위한 작품추천·수집심의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앞서 시는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기구인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과 유관 기관 추천을 병행해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4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시는 참석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27일 오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인 전주시립미술관 공정한 작품 수집 추진 위한 작품추천·수집심의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사진=전주시>
또 향후 소장품 수집 방향과 계획에 대해 위원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

기도 했다.

이날 위촉된 14명의 위원은 향후 수집 대상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미술사적 중요성, 미술관 운영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향후 건립될 전주시립미술관이 지역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개관 전까지 100점 이상의 소장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 미술사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과 기증 등을 통해 작품수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과학수사요원 운전자 생명 구해

교통사고 현장서 신속 대응
교통통제·응급조치 실시

절도 사건 현장 감식 후 귀청하던 과학수사계 요원들이 우연히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해 주목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효자광장 사거리에서 현장 감식을 마치고 귀청하던 전북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유지영 검시조사관과 홍관표 경위 등 5명은 승합 차량과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왕복 8차선 교차로 중앙에 쓰러져 있던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 여성(70대)을 목격했다.

홍관표·이은중 경위 등 4명은 즉시 교통통제를 실시했으며 간호사

출신인 유 검시조사관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륜차 운전자를 인도로 이동시키려는 주변인들을 만류하는 한편 경주 도수 고정 및 119 현장 도착전까지 의식이 소실되지 않도록 약 15분간 대화를 유도하며 안전하게 신변을 인계했다.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노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로 "어디가 아프냐?"는 유 검시관의 질문에 "목"이라는 단답형 답변을 한 후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점차 의식이 저하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신속한 현장조치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 두 명의 과학수사 요원에게 장려장을 수여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노후아파트 12,063세대 대상 '감지기' 설치

화재연기 감지 주택 소방시설

전북소방본부는 27일 덕진구 반월주공 아파트 아동, 노인, 장애인 거주 세대 대상으로 감지기를 설치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아간이나 취침 중 화재를 빠르게 알릴 수 있어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초기 신고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2억9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도내 노후 아파트 95개 단지 12,063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인지와 대피에

어려움이 큰 세대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전북소방은 설치 이후 사용법 안내와 유지관리 상태 확인을 병행해 장비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 '수소놀이체험관' 안전관리 점검

이용객 '안전최우선'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현장을 찾아 시설물 진행 상황 및 현장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을 하반기 개관이 예정된 수소놀이체험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 시장은 그간 공사 추진 상황과 체력 콘텐츠 배치 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시설을 이용할 관람객들의 동선을 확인하며 이용 편의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 우 시장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 자연생태관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상황을 우려하며 수소놀이체험관 마무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가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전주수소놀이 체험관은 전주한옥마을 및 전주자연생태관에 인접한 교동에 건립되는 체험시설이다.

이는 국내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수소 체험홍보시설로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213㎡의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설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가족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 협력체계 강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온가족보듬사업 추진 현황 공유
자원 연계 등 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가족센터는 27일 '온가족보듬사업(취약·위기가족 지원)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위원 10여명과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취약·위기가족에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나아가 온가족보듬사업 추진 방향 및 현황 공유와 취약·위기가족 지원 위한 자원 연계 그리고 역할 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조 모임 △심리·정서 지원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에서는 물품 등 물질자원 연계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연계 및 취업, 주거, 법률, 건강 등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아 오며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아이 돌봄 △공공육아나눔터 운영 등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금연' 다각적 홍보

세계 금연의 날 맞아
6월 11일까지 금연 홍보 주간 운영

전주시보건소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보건소 금연 홍보는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에 따른 이동 금연 캠페인으로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은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창립 40 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 위한 지정 기념일이다.

한편 시보건소는 지난 4월 24일에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천연·합성을 불문하고 니코틴 흡입



제품은 모두 범상 담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권련형·액상형 전자담배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 26일 덕진구 온고을로 소재에서 '2026년 2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단계별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특히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서별 임무 숙달과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역할 수행, 재난정보 수집·분석·전달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제 재난현장과 동일한 절차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전주 인근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아름다운컨벤션웨딩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에 대응하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현장 지휘체계를 점검했다.

또 각종 상황판과 운영일지, 보고서류를 현장에서 실시간 작성하며 현장 정보 수집과 상황 공유, 단계별 보고체계 유지 등 통제단 운영 전반에 대한 숙달 훈련도 병행했다.

권기현 서장은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통제단 운영능력과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지역 50+나눔독 커뮤니티 '오디오북' 기증

전주지역 50+어른학교 나눔반과 나눔독 커뮤니티 회원들은 직접 제작한 오디오북 5권을 전북점자도서관에 전달했다.

전주시는 전북점자도서관 열린점자작은도서관에서 '50+ 나눔독 커뮤니티 오디오북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은 '2026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증된 오디오북은 △50+어른학교 나눔반 8기가 제작한 김호연 작가의 '나의 돈키호테' △나눔독 커뮤니티 '아보스'가 제작한 김태훈 작가의 '성심당' △나눔독 커뮤니티 '소리책'이 제작한 안도현 작가의 '연이'와 이경혜 작가의 '새똥', 한강 작가의 '눈물상자'이다.

전주시 50+ 나눔독 커뮤니티는 중장년층 시민들이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과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평생학습 공동체다.

나눔독 커뮤니티 '소리책'은 지난 2022년 8월 4일 18명으로 결성됐으며 '아보스'는 같은 해 12월 1일 20명으로 결성돼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50+ 나눔반 9기에도 18명이 참여하는 등 나눔을 매개로 한 학습과 나눔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기증을 통해 독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장애인자립위원회' 개최

장애인 자립 실질적 지원 검토

전주시가 장애인 자립 돕기에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댔다.

이에 시는 27일 '2026년 제1회 자립지원위원회'를 열고 자립 대상자 심의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자립지원위원회 위원 8명과 시 장애인복지과 자립지원팀, 수행기관 전담 인력 등이 참석해 장애인 자립 지원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정소민 기자

이날 위원회는 확대피해센터 거주 중인 홍○○ 씨를 자립대상자로 정해 지원 필요성과 적합성,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한편 기타 안건을 논의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농생명·식품산업 성장 '주역'

박람회B2B 지원... 진안 버섯마루 6차 산업 농생명 기업 진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은 진안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 유한회사가 △버섯영양밥 △버섯 그대로 △버섯 피클 등 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품 경쟁력 강화 통한 판로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소비층들의 인기를 받고 있다.

버섯마루는 국산 목이버섯 가능성에 주목해 중균과 배지의 생산,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농생명 기업이다. 초기 원물 위주 판매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버섯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버섯영양밥은 소비자 시식 반응을 통해 개발된 간편식 제품으로서 버섯의 풍미와 영양을 살려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간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농

생명 대표기업 및 전통식품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버섯마루 제품 경쟁력 강화 위한 박람회와 B2B 행사 등 다양한 판로개척 기회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버섯마루는 △바이어 △MD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 등 제품 홍보와 시장 반응 확인 및 신규 유통채널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버섯마루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홍소핑 △쿠광 △네이버 등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박람회를 병행하며 판로를 넓히고 있다. 버섯마루 홍소핑 대표 판매 제품 '버

섯 그대로 5종 세트' 또한 좋은 반응을 보이며 버섯영양밥과 함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와 농생명·식품산업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성공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북 농생명 대표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스타·성장스타·리딩스타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60여개 기업 성장을 이음하고 있다. 버섯마루는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소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 염색봉사 전개

영농도우미사업 홍보 문해 지역 어르신 염색과 함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농도우미 사업 홍보를 병행해 진행했다. 한편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영농도우미 임금(84,000원/기준) 70%를 최대 10일치 지원한다. /정소민 기자

국토정보공사-가스안전공사, 지하안전 강화 '맞손'

굴착공사 파손 사고 선제적 예방 기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지하정보 활용 및 지하안전 강화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관로 파손 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6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X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양 기관의 굴착공사 구간 지하시설물 유무 정보 제공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 운영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 제공 등을 실행하게 된다. LX공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굴착공사 시 관로파손 사고 등의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7월 16일부터 원서접수 는 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현재 스마트농업 정책사업 자문·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두 분야로 나눠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8월 29일, 제2차 시험은 오는 10월 31일 실시하며 관련 국가기술자격(시설원예기사, 축산기사 등) 취득자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현장 경력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정보시스템(https://sfm.kpcor.kr) 또는 고객센터(1577-9402)를 통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맞춤형 비료 살포 '스마트 이앙기' 개발

비료사용량·노동력 환경오염·수확량 잡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앙 동시 위치별 맞춤형 비료 살포량 조절 스마트 이앙기(이하 스마트 이앙기)'를 개발했다. 현재 농업 현장은 농가 경영비 증가,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비료 원료 수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필요한 곳에 적정량의 비료를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시비량 산정(분석) 시비 지도 생성(제방) 실시간 농작업 위치 인식(판단) 최적 시비량 제어 기술(제어) 등 네 가지 핵심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이앙기를 개발했다. 스마트 이앙기를 사용하면 모내기과 비료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논 상태에 일일이 판단해 비료를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구역별로 적정 비료량을 사용할 수 있어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논 전

체의 비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단백질 함량 등 쌀 품질 기준을 좌우하는 질소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지원도 가능해 '품질 관리형 농기계'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연구진은 화성의 비 재배 농가에서 현장 적용 시험을 했다. 4개 필지에 스마트 이앙기를 적용한 결과 관행보다 1헥타르(ha) 기준 비료 사용량은 29%, 비료 살포 시간은 40% 줄었다. 그리고 수확량은 10% 늘었으며 구역별 수확량 편차는 33% 줄었다. /김영태 기자

스마트 이앙기를 전국 비 재배 면적(70만 헥타르)에 적용한다면 연간 약 5600억원(80만톤/헥타르)의 농자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에 따른 인건비 절감, 비 품질 향상으로 인한 소득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 이앙기의 빠른 상용화와 현장 보급을 위해 2027년까지 산업체와 협력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2028년에는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22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공감형 상담 '인정'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서비스 분야 9개 항목 중 '문의 내용 파악도' 부문에서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이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고객불편 해소를 위해 상담 예약 서비스를 확대해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고객을 향한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방문의 날' 운영

지역상권 활력·상생문화 확산 상 속 상생문화 확산 앞장선다. 전북중기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식사와 정보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분위가 확산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이후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도 지속적으로 아울러 도내 골목상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례적인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산단공, 매칭데이 개최

AI 수요·공급기업 매칭 총 16개사 컨설팅 연계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3층 대강당(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에서 '전북권 산업단지 MAX 카라반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군산AX실증사업에 일환으로 조선·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 및

생산성 혁신,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 완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전북 산업단지 내 AI(인공지능)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 간 기술 매칭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칭데이는 제조 현장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단지 내 AI(인공지능) 대 전환 제조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2026 인공지

능 전환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전북 TP) △산·학·연 종합프로그램 지원 안내(전북지역 산업진흥원) △기업별 AX 수준진단 조사 △컨설팅 공급기업 IR 발표(9개사) △수요·공급기업 1:1 매칭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핵심 프로그램 '1:1 매칭상담회'에서는 공급기업별로 독립된 상담 테이블을 구축해 내실을 기했다. 수요기업들은 평소 관심 있던 AI 솔루션 공급기업과 직접 대면해 기업당 10~20분간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단순 교류를 넘어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물꼬를 텄다.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협력해 추진한 이번 행사는 사후 지원체계까지 연결된다. 상담회를 통한 매칭 결과는 2026년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총 16개사 지원, 기업당 최대 450만원)과 연계된 선정 기업에는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컨설팅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장년내일센터 'AI 디지털 체험존' 개소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KTcs 전북디지털배움터는 27일 '중장년 AI 디지털 체험존' 개설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체험존은 올해 11월 말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중장년 AI 디지털 체험존은 일상 속 디지털 소외를 겪는 중장년층에게 스마트 기기 중심의 체험 기회를 상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이를 통해 호남지역 스마트 특화 거점센터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체험존은 △교육용 키오스크 △혈압 건강측정기(유비오메타) 등 생활 밀착

형 AI·스마트 기기를 갖춘다. 또 디지털 감사 자격을 보유한 중장년 강사를 전담 배치해 눈높이에 맞는 체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숙 전북중장년내일센터장은 "조성된 중장년 AI 디지털 체험존이 중장년들에게 AI와 디지털 기계를 편하게 접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창 전북디지털배움터 센터장은 "체험존 개설을 계기로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전북중장년내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인자위 '전북형 채용연계 직무교육' 협약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기대 재 양성 및 채용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인자위와 캠퍼스종합기술원 위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2026년 제4회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캠퍼스종합기술원과 함께 '전북형 채용연계 직무교육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 채용을 직접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세 기관은 미래차(전환경차) 분야 인

재 양성 및 채용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인자위와 캠퍼스종합기술원 위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2026년 제4회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캠퍼스종합기술원과 함께 '전북형 채용연계 직무교육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이 체결된 박람회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주제로 27~28일 이틀간 개최된다. 중학생·학부모·교직원·기업 관계자 4100여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홍보관, 학교 설명회, 정책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따뜻한 나눔 실천

경로당 혈압측정기 전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27일 진북동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자동 혈압측정기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물품은 125만원 상당의 전자 자동 혈압측정기 1대와 탁자의자 1세트다. 이번 전달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평소 혈압을 손쉽게 확인하며

이남호 “천호성, 6340만 원 대납·매관매직” 고발

이 후보 측 “5급 자리 약속 등 물증 확보” 천 후보 측 “사적 대화, 캠프와 관련 없어”

전북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거액의 변호사비 대납과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지며 선거판이 대형 비리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후보 측이 2022년 사전선거운동 사건 당시 선입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총 6340만 원을 사기업 A씨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교육청 공무원 B씨가 A씨에게 5급 사무관 자리와 사업권을 대가로

약속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당장이 같은 추악한 뒷거래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A씨는 공무원 B씨 계좌로 5,600만 원, 변호사 사무장에게 1,0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보냈다.

이후 B씨가 500만 원을 돌려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납 액수는 6,100만 원이며, 여기에 최근 3명의 벌금 240만 원까지 A씨가 추가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천 후보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무원 B씨 또한 선거캠프와 무관한 인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2022년 11월은 교육감 선거에 낙선하고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업과 특정인의 대화 내용을 천 후보와 연계시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전북타임스>

천 후보 측은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후보 흡입 내기 시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후보는 계속적인 비방을 중지하고 본인의 음주운전 의혹과 휴대전화 압수사색 전력부터 제대로 해명하라”고 맞붙을 댔다.

한편, 도내 퇴직 교직원 1,145명은 같은 날 전북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열한 학교 현장 경험을 갖춘 현장 교육 전문가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이남호 후보를 향해 “금품 살포를 통한 언론 매수 혐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개최

내달 22일 열려

내달 22일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제3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개최된다.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는 미래 주역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그리기 대회로서 올해 34회째를 맞았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어린이들의 느낌과 생각을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게 대회 핵심이다.

대회 입상작은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로비에 전시된다.

입상작 선별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최우수상 어린이 1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특상 그리고 입선 작품들에게도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사진=국립전주박물관>

참여 대상은 전북도 소재 초등학교생 또는 동일 어린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희망 학교는 오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 선수단, 전국소년체육대회서 “눈부신 선전”

총 67개 메달 획득

전북 체육의 미래인 꿈나무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출전, 멋진 경연을 펼쳤다.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총 67개(금메달 7개·은메달 24개·동메달 36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선수과 입원 등 약 1290명이 출전한 전북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출전, 정정당당 승부를 펼치며 고른 활약을 펼쳤다.

기록 종목인 수영과 롤러, 체조, 양궁

등에서는 전년도보다 향상된 경기력을 선보였고, 체급 종목인 태권도와 씨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다.

유도 종목에 출전한 이승후(인후초)는 종목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롤러 종목에서는 중등부 여자 단체전(계주 30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농구(전주남중)와 배구(전주근영중), 축구(전북체중), 핸드볼(송학초, 정읍서초) 등의 단체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금메달은 태권도 장지술(모현초), 롤러

김하연(전주중), 수영 오재연(전북체중), 유도 이승훈(인후초), 롤러 전북선발, 스키 류지안(남부안클럽)이 획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이와 함께 수영 종목의 권시영(익산클럽) 선수가 배영 100m와 2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펜싱 예매 개인전의 김민서(이리북중) 선수와 태권도 42kg급의 장지민(모현초) 선수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힘을 보탤다.

동메달 소식도 잇따랐다. 태권도 종목에서 부천중학교 박시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펜싱 종목에서는 지원중 선수

희 선수의 개인전 동메달을 비롯해 위즈클럽(단체전), 이리북중(단체전)이 각각 동메달을 추가하며 익산 펜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편 대회 기간 도 체육회는 전북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트레이너를 파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도 체육회 정강산 회장은 “학교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며 “체육 꿈나무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 마무리

정읍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 12개 선수단이 참가한 ‘제18회 내장산단풍배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 고양시와 충남 아산시시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개 장애인 배구단 소속 선수들과 가족들이 정읍을 방문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개최지인 정읍시에서는 송현철 단장이 이끄는 ‘정읍단위와 풍이 좌식배구단’ 선수 10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의 영예는 아산시 좌식배구단에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체육 발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현대 ‘The 3rd Half’ 성공적 첫걸음

전북현대모터스FC가 K리그 사상 유례 없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융합 모델인 ‘The 3rd Half’를 성공적으로 론칭, 프로축구 흥경을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팬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종합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단의 고민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북현대는 지난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홈경기 및 경기 직후 이어진 포스트 매치 콘서트 ‘The 3rd Half with 잔나비’를 통해 총 31,447명의 관중을 불러 모았다. 이는 구단이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했던 당초 예상 관중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축구와 문화 콘텐츠의 결합이 가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결과다.

이러한 유의미한 변화는 구단이 정교

하게 구축한 CRM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당일 전주성을 찾은 총 관중은 일반 티켓 구매자 27,595명과 굳건한 충성 고객을 넘어 팬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종합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단의 고민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열린다

29일~6월 2일 개최

전국 대학 선수들이 체육도시 익산에 모여 대한민국 양궁의 미래를 향해 힘찬 활시위를 당긴다.

익산시는 ‘제29회 회장기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양궁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대학 양궁 선수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오는 29일 공식 연습과 정비

검사를 시작으로 △30일 남·여 장거리 경기 △31일 혼성 단체전 △6월 1일 남·여 개인전 △6월 2일 남·여 단체전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 대학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박세희 감독이 이끄는 원광대학교 양궁부 소속 한소혜·김예빈·박가은·조유진 선수 등 4명이 출전해 전국 무대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축구대회’ 성료

정읍시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0개 팀 900여 명이 참가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상평인 조구장과 신태인인조구장에서 나뉘어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대와 60대 축구 동호인 30개 팀 소속 9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경기는 조별 예선을 거쳐 결선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

수들은 전반전과 후반전 내내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였다.

또한 서로를 든든하게 격려하면서 승리를 향한 열띤 경연을 이어가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를 연출했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열띤 끝에 50대부에서는 전주시600B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어 60대부에서는 목포시하리케인팀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전국 축구 동호인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고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수칙

| | | | | |
|------------------------------|-----------------------------|------------------------------|---------------------------------------|--------------------------------|
| <p>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p> | <p>세탁기 사용 회수 줄이기</p> | <p>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이기</p> | <p>T.V 시청 시간 줄이기</p> | <p>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p> |
| <p>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p> | <p>절수설비 기기 설치하기</p> | <p>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p> | <p>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p> | <p>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p> |

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내달 1일부터 조기 접수

군산시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전년보다 앞당겨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농가의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비료공급 시점까지 등록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kg)당 1,300~1,6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군산시 관내 가족분퇴비 구매 시 1포(20kg)당 300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농업·e지 온라인 접수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신청 일정이 6월로 변경된 만큼,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29일 문유석 작가 초청 강연 개최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29일 오후 7시 도서관 강당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문유석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 작가는 판사에서 작가로 직업을 바꾼 과정부터 최근 펴낸 에세이 '나로 살 결심'에 담긴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다.

특히 삶의 전환점에서 마주한 고민과 결심을 털어놓고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한 성찰을 진솔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문 작가는 그동안 '개인주의자 선언', '최소한의 선의', '판사유감' 등 여러 저서를 통해 합리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전해왔다. 이와 함께 '미스 함무라비', '악마판사', '프로보노' 등 인기 드라마 집필에 직접 참여한 문 작가는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행사는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책 이야기(북토크) 형식으로 열려 참여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한층 좁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현재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용기와 방향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발달장애인 대상 선거교육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지난 26일 발달장애 수강생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위한 '우리가 만드는 정책선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쉬운 정보 제작 전문 기관인 '소소한소통'이 학습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했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이 선거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자료를 활용해 △선거의 의미 △투표 방법 △후보자들과 정책 이해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정치·선거 용어를 쉬운 표현과 게임 자료로 전달해 참여자들의 높은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순수경 교육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와 사회참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임근식 기자

익산시, 합라산 산림복지벨트 조성

휴양치유-체험 결합 산림치유 힐링 거점...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익산시는 27일 합라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호남의 명산인 합라산을 중심으로 자연휴양림과 무장애길 등 대규모 산림 인프라를 확충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산림복지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급증하는 산림 휴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총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합라산 일대에 휴양·치유·체험이 결합한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림문화체험관부터 국립익산치유숲까지 연결되는 1.9km 구간에 경사를 낮춘 무장애나눔길과 녹차밭 테크길을 조성한다. 어린이들이 동반한 가족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도 단절 없이 합라산의 청정 자연과 국내 최북단 녹차밭의 비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40ha 규모의 대지에 수국과 청단풍 등 계절마다 웃을 갈아입는 수종을 심는 '지역 특화 조림 사업'을 전개한다. 치유숲 진입로 주변에는 수국 가득한 도시숲을 더해 사계절 내내 탄성을 자아내는 명품 경관숲을 완성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단순히 숲을 걷는 것을 넘어 익산에 머물며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에도 나선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정밀하게 진행 중이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명품 휴양림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의 흥행 성공도 합라산 개발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1만 951㎡ 규모의 도심형 산림체험 공간인 신흥공원 유아숲은 주말 평균 이용

객이 5,000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단체 체험 중심에서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이용층이 확산되면서, 시는 합라산 녹지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이번 산림복지시설 확충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청정 숲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행정의 약속"이라며 "합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명일책임해양, 새만금에 생산공장 준공

310억 투자... 해상작업용 특수구조물 생산 돌입

해상 특수구조물 전문기업인 명일책임해양(주)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해상작업용 특수선박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군산시는 27일 명일책임해양(주)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기지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와 협력사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생산시설

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명일책임해양(주)은 지난 2025년 6월 10일 투자협약 체결 이후, 새만금 산단 내 총 310여억원을 투입해 특수 해상 구조물 생산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를 통해 40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일책임해양의 주력 생산품인 작업바지선은 해저면에 스프레드그를 내려 구조물을 고정할 수 있는 특수 해상 구조물로, 해양항만공사와 해상풍력 설치 및 해양플랜트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과 친환경 해양산업 시장 확대에 따라 해상 작업용 특수구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명일책임해양의 이번 투자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해양장비 및 미래 해양산업 기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명일책임해양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모듈형 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제조업의 우수한 사례"라며, "최근 해상풍력과 해양항만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명일책임해양(주)이 새만금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형 일자리' 글로벌 영토 확장

협력기업 매출 성과 하림, 해외 판로 개척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성장하는 '익산형 일자리' 기업들이 국내 안방 시장을 사로잡은 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무대로 뻗어나가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온라인 기획전 전폭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단을 결성하는 등 전방위적 마케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익산형 일자리'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 플랫폼인 NS쇼핑 내에 '익산형 일

자리 전용 브랜드관'을 신설하고 메인 화면 노출 등 집중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이번 1회차 기획전에는 작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그린로드'를 비롯해 익산 협력기업 13개사가 참여했다. 시는 기업당 15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집중 투입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단기간에 총 매출액 1억 1,244만 원, 주문 수량 7,025건에 돌파하며 청신호를 켜다. 특히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소기업들이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매출 급증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상생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이러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 기세를 몰아 시는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으로 직행한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기업 간 거래) 식품 전시회인 '태국 식품박람회 (THAIFEX - Anuga Asia 2026)'에 익산형 일자리 핵심 참여기업인 '하림산업'의 참가를 전격 지원하고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우리 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이번 주 태국에서 열리는 세계적 박람회를 시작으로, 익산형 일자리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외교관이자 교두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노선 체계 개편 나서

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짜기 위해 '2026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내버스 이용 현황과 승차차 수요, 노선별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선 운영 방안

을 세울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조사원들이 주요 노선 버스에 직접 탑승한다. 이들은 시간대별 승차차 인원과 이용 형태, 혼잡도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거쳐 이용객 수요에 맞는 노선 조정,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개선, 교통 취약 지역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핵심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놓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량 조사는 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잔여 45대 추가 모집

정읍시가 낡은 택시를 새 차로 바꾸는 '2026년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1차 대상자 31명을 확정하고 남은 물량 45대에 대한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관내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폐차 지원 신청을 받았다.

올해 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총 76대로 세부적으로는 개인택시 51대, 법인택시 25대가 배정됐다.

이 기간에 모두 32건의 신청서가 들어왔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차량 연식과 무사고 경력 등 자격 조건을 심사한 결과 총 31대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업종별로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21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대는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외됐다.

이 사업은 너무 오래돼 바뀌어야 하는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시는 1차 모집에서 전체 76대 가운데 31대를 선정함에 따라 남은 45대에 대해서도 마련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모집과 관련한 신청 자격이나 필요한 서류는 정읍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영농폐기물 정리... 침수 선제 대응

화산지구 일대 정비

익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삼수 침수 우려 지역인 금강 유역 화산지구 일대의 영농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농경지 침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망성면 화산리, 용동면 구산리, 용안면 법성리 등 화산지구 일원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전수조사를 마치고 선제적인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화산지구 농경지와 배수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각종 영농폐기물은 우기철 기습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물길을 막아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바이오농정국 소속 5개 부서를 중심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영농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

사를 통해 파악된 수거 물량을 바탕으로 집중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집중 정비는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가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배출 장소와 기간을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수거 대상은 수로를 막기 쉽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영농자재로 폐비닐, 차광막, 다점보온커튼, 부직포, 호스다.

시는 현장 정비와 함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자 처리가 원칙인 만큼 적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민약의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완료해 소중한 농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통돌이 봉사단' 돌봄 공동체 조성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예산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군산시는 27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통돌이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미용, 다재약물관리, 방문간호, 소규모 집수리 등 총 4개 분야의 봉사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 의지를 다졌다.

'통돌이 봉사단'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자발적 민간 참여형 봉사단으로, 공공 영역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완하

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된다.

봉사단은 분야별 재능기부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 가정 방문 케어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드림봉사단' △복합 약품 복용 대상자의 투약 지도와 의약품 보관 교육을 지원하는 '약사회' △혈압·당뇨 체크 등 기초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생활수칙 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회'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중간점검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해결의 열쇠가 될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5월 말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6일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부처 단계 반영 결과 점검보고회'를 열고 향후 기획예산처 및 국회 단계를 겨냥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그동안 익산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사업 40건(총사업비 395억 원)을 발굴해 전방위적인 부처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1차 부처 단계에 서한 총 19건, 220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부처 단계 반영으로 익산의 정주 여건 개선과 신산업 영토 확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 생태 도시의 기반이 될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바이오 시장을 선점할 동물헬스케어 바이오뱅크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첫 단추를 잘 꿰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 혁신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부처 단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미반영된 사업들도 기획처와 국회 단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격포 대규모 개발사업 '속도'

별목작업 공정 본격화... 영상테마파크, 소음 대비 내달 1~12일 임시 휴관

부안군은 착공 초기 실시한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데 이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총 1221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6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 정비 과정에서 별목작업이 시작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별목작업과 이동통신 중계기 이



부안군, 지난 26일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별목작업 시작 <사진=부안군>

설이 병행되면서 일시적인 소음 발생과 통신장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안영상테마파크는 이용객 안전과 불편 최소화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 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사공사와 협력을 바탕으

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주요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

문제점·애로사항 공유 및 사업 점검 체계 강화

고창군이 지난 2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고창군수 권한대행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핵심 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사업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남부권 어울

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기저점 육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해결방안과 사

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해 사업 완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안전 대책 논의

내달 13~14일 개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김제시는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축제 운영 관계자와 경찰, 소방, 전기안전 분야 관계기관 등 15여 명이 참석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을 앞두고 다수 인파가 모이는 축제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재난 및 응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관람객 동선 관리, 무대 시설 안전성, 교통 및 주차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또한 행사장 내 안전요원 배치와 유



27일 개최된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사진=김제시>

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상황을 대비한 현장 대응계획과 인파 밀집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

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케이팝, 브브걸 등 다양한 아티스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천시 김제시장권권대행은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자원봉사 실천 릴레이' 돌입

자봉센터, 현장 중심형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규)와 함께 27일 변산국립공원에서 '부안군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형 자원봉사 실천 릴레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민 참여형 생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자원봉사(Micro Volunteer)'를 기반으로 삼아,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공원공단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단장 정주영),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송희복), 부안군청년회의소(회장 조항우), 부안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단장 정흥규), (사)유기동물보듬센터 허그(이사장 최동환)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공원공단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연보전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을 지원하며,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실천 캠페인을 연계해 운영한다.

또한 부안군청년회의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 부안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예방 및 예방,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안군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해양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실천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릴레이형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경찰서>

고창서 모양지구대, 치안 강화 나선다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열어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모양지구대(대장 황문주)는 최근 학생대상 강력범죄 발생으로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율방범대 대장 황문주(대장 김학배) 및 여성지대장과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안전을 위한 가시적 경찰활동 강화 △통학로 안전진단 추진 △범죄취약지역 합동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학생 대상 범죄에 대

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순찰 강화, 공원·골목길 등 범죄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순찰 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의 가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안전교육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7일 직원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하수도시설 운영 및 공사 현장 근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박경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박경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고창군이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내부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청렴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청탁금지, 고품수수 등 전통적 개념의 소극적 부패 예방에서 더 나아가 군민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청렴실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과 실무직원들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의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특히, 김영식 권한대행의 공직선배로서의 경험담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적극행정 추진과정의 걸림돌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적극적인 태도"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적극행정 실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년축제기획단' 활동 시작

김제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청년축제기획단(청년공감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축제기획단은 청년이 김제청년축제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기획·확보·실행까지 직접 운영해보는 실행 중심의 청년 참여기구로, 관내 거주 및 활동 청년 21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천시 김제시청 권한대행, 서해영 성장전략실장, 청년축제기획단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6년 주요 청년정책 안내와 청년축제기획단 활동 방향 설명 등이 진행됐다.

청년축제기획단은 올해 김제청년축제 전반기에 대한 콘텐츠 구성,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SNS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당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 종료 후에는 참여 후기 공유와 성과 나눔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청년공감 서포터즈가 정책 제안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청년들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축제를 만들어가는 실행형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 간 협업과 네트워킹 강화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천시 권한대행은 "청년이 단순 참여를 넘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김제청년축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민원지적과 포도농가 일손돕기 펼치

김제시 민원지적과는 지난 26일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용지면 봉의리 소재 포도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원지적과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포도순치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포도순치기는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정밀한 손작업이 필요해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참여 직원들은 농가의 사전 안내에 따라 올바른 순치기 방법을 익힌 뒤 각자 담당 구역을 맡아 꼼꼼하게 새순을 제거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시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고령농 등 취약농가의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시민적 활동으로 마련됐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사무실을 벗어나 직접 흙을 밟으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농번기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상반기 총 199명에 3억7700만원 지원

(재)고창군장학재단이 2026년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원대상은 총 199명 3억77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민선 8기 4년간 총 619명 12억3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결실을 맺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2026년 대학 재학생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8명이 신청하며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

장학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199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상반기 등록금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민원 담당자 45명 대상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군산 일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원 최일선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에 노출되기 쉬운 민원담당자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프로그램 중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민원담당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마련됐다.

정 권한대행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민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깊은 공감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은 코칭학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관계를 살리는 친절과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한 소통 특강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 지역 문화체험 탐방을 비롯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다채로운 치유 과정으로 구성됐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은 군민을 향한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힐링 프로그램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부안군 민원담당자와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상호 신뢰하는 민원 행정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K-완주포럼 “유희태, 현수막 철거 해명하라”

선관위 확인 시민단체 현수막 주민자치위원 동원 철거 의혹 “군민 표현 자유 훼손” 비판



유희태 후보

K-완주포럼은 27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의 입과 귀를 막는 유희태 후보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현수막 철거 해명을 촉구했다.

K-완주포럼에 따르면, 이를 전 완주군지역에 50여개의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거됐다는 것. 양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유희태 후보측이 주민자치위원에게 부탁해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확인을 거친 시민단체 현수막으로, 선관위로부터 게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까지 받은 현수막이다”며 “그럼에도 유희태 후보측이 주민자치위원에게 현수막 철거를 부탁, 실제 철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군민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러산 부동산 투기 의혹, 개발 특혜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군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다육 충격적인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단체 현수막 철거에 주민자치위원이 동원된 점은 완주군민의 귀와 입을 막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현수막을 정당한 행정절차 없이 임의 철거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법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수막 철거 과정에 유희태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민·관 협력 강화

복지·의료기관 6곳 협약 체결 방음복약지도 맞춤형서비스

완주군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전문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7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과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임병화 회장), 완주군약사회(서소영 부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지부(양영식 대표), 실로암요양병원(유재신 대표), 완주요양병원(김정숙 총괄이사), 완

주지역자활센터(김진왕 센터장)가 참여했다. 보건·의료와 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 기관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현장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전문 서비스 연계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 건강관리 및 복약지도 △일일생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세밀하게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각 기관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더욱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전시 연계 복합 예술 공연 선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다음 달 6일 이후 2시, 미술관에서 전시 연계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장품전 ‘아침의 아이’와 연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김병중 화백의 작품에 담긴 생명과 자연의 미학을 무용과 음악으로 확장해 보다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전시의 메시지를 공연 예술로 확장한 융복합 무대로 진행된다. 안무가 장해림이 이끄는 동시대 무용단체 ‘99아트컴퍼니’와 가야금 연주자 이화영이 함께 참여해 현대무용과 가야금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객석과 무대를 구분하지 않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된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움직임과 음악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숲’을 경험하게 된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관 공간 전체를 무대로 활용한 특별한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감동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는 소장품전 ‘아침의 아이’와 기획전 ‘김병중의 드로잉 : 그림에도가 오는 7월 19일까지 이어진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단, 공휴일인 월요일은 정상 운영 후 다음 날 휴관한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문체부 공모 선정 ‘K-풍류 명소’ 도약

소양 오성·위봉마을 138억 투입 체류형 관광지 ‘풍류도원’ 조성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완주군은 확보한 총 138억 원(국도비 78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양면 오성 및 위봉마을 일원의 본격적인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군은 ‘세계를 품는 K-풍류의 성지, 완주 풍류도원(風流桃源)’을 주제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오성마을 일원을 고품격 체류형 감성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오성체~오성한옥마을의 순환 동선을 구축하는 풍류길 조성 △풍류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풍류공연마당 조성 △소리·미식·경관·서화 등을 체험하고 쉴 수 있는 풍류쉼터(별사) 조성 등이 추진된다.



<사진=완주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방한 관광의 핵심 목적지로 도약할 방침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은 올해 국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함께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H/W) 사업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마을의 고유한 매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최고의 체류형 관광 명소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봉동 만경강변 ‘씨름공원’ 조성 마무리

‘씨름의 고장’ 정체성 새 명소 하천정용 허가 안전성 확보

완주군이 ‘만경강 통합 하천 정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봉동 씨름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수변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봉동을 장거리 봉신교 인근에 총사업비 13억 100여만 원을 투입한 ‘봉동 씨름공원’은 씨름의 고장 봉동읍의 지역 정체성을 살린 주민 친화형 수변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의 우선 추진 사업으로, 지난 2025년 5월 하천 정용 허가를 받은 후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 왔다.

새롭게 단장한 씨름공원은 봉동읍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주민들이 일



<사진=완주군>

상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꾸렸다. 주요 시설로는 읍민의 날 행사 등이 가능한 씨름장, 다목적 광장, 관람 관중석(스탠드),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 등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전북지방환경청의 정식 하천정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조성해 우기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삼례농협, 수박 ‘블랙위너’ 신제품 ‘블랙업’ 본격 출하

완주 삼례농협 명품수박 ‘블랙위너’와 신제품 ‘블랙업’ 출하식이 지난 26일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김성훈 농협전북본부장, 완주관내 농협 조합장, 삼례농협 임직원, 수박공선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삼례농협 수박공선회는 회원 농가 25곳과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약 330동 규모의 수박을 출하할 계획이다.

특히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활용해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의 고품질 수박만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유통, 호남물류, 전주·익산 지역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삼례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블랙위너’ 수박은 농우바이오가 개발하고 삼례지역 농가가 생산해 전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블랙위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온기에 강한 블랙위너 업그레이드 품종인 신제품 ‘블랙업’ 재배도 새롭게 시작하며 삼례수박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나서고 있다.

강신학 조합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업 품종과 함께 삼례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지역특화 융복합 가공식품 개발 ‘박차’

농진청 공모 10억 투입 시범사업 파프리카·백향과·추어 식품 개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가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간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지역 특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가공 상품 개발과

신소득 창출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남원 대표 농특산물인 파프리카, 백향과, 추어를 연계·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활용한 농업인 가공 창업 접근성 향상에도 힘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 특화작목 연구소인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시제품 상품화와 기술 실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9개소의 농업경영체가 선정

돼 식혜, 와인, 소스류, 추어 가공식품 등 다양한 융복합 가공식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출시와 시장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단일 품목 중심의 가공식품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융합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남원형 가공식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상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차량과태료 장기 체납 집중 점검

순창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부진한 주요 부서의 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징수율을 원동력 있게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특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 분석에 따르면, 장기 체납액의 약 80%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처럼 비중이 큰 차량 과태료

를 비롯해 징수율이 저조한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군은 향후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독촉 서류 발송 △금용정보 활용 조사 △압류 조치 확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분담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강력한 징수 대책들은 각 사업 부서와 세입 총괄 부서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행정공백 차단 ‘총력’...업무 보고회 개최

현안사업·신속재정집행 상황 공유 주민 불편 최소화 대응방안 논의

순창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군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군정 공백 없는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27일 군청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현안사업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오는 29일까지 3일간 조광희 순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며, 국·실·과·소장과 부서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당 부서별 올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



<사진=순창군>

며, 신속재정집행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군은 선거기간 중에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불편 최소화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 보고회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정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별 현안과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지역 화장품기업 지산학연 협력 본격화

바이오연구원-비전대-3사 협약

남원시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전주비전대학교와 손잡고 관내 화장품 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전주비전대학교(평생교육원), 관내 화장품 기업 3개사(코비스, 웰스킨화장품, 에스비씨)와 RISE사업 연계 지산학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내 화장품 기업들은 우수한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브랜드 홍보 전략 마련이나

마케팅 전문성 강화, 그리고 현장 인력 수급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실습·체험 시 관내 기업 생산 제품 우선 활용 △대학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 맞춤형 마케팅·홍보 컨설팅 지원 △지역 맞춤형 인재 및 유학생의 관내 기업 취업 연계를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들은 안정적인 제품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인력난까지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주거환경 토탈케어’ 협약 체결

남원시는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배신수)와 2026년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공모한 사업에 남원시가 전복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진행했으며, 협약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 대상 무상으로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는 읍·면·동 수요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인 광역자활기업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 후 본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집수리,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노후화된 주거공간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추진

전북 임실군(군수 심민)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202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진행해 온 서면평가를 이날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관내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평가를 돌입한다.

평가 전문기관인 전북경제연구원에 위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은 이번 평가는, 평가단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지난해 주요 사업 실적과 조직 관리 역량,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심층 진단을 통해 서면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6월 말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군은 평가 등급에 따라 환류 조치를 시행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7월 중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상수도 우수율 개선 연 13억 절감 효과

진안군이 상수도 관망 효율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25년 말 기준 상수도 우수율이 6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54.7% 대비 13.3%p 상승한 수치다.

우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실제 사용과 요금 부과로 이어지는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누수와 손실이 줄어 상수도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함께 개선된다.

이번 우수율 상승에 따라 연간 332,128㎥의 누수가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진안군 수돗물 생산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에 해당하는다. 해당 물량은 백운·성수·마령면 주민이 약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급수구역 블록화, 야간 최소유량 분석을 통한 미세 누수 탐지, 노후 상수관로 및 계량기 교체, 정밀 누수 탐사 등을 집중 추진해왔다.

진안군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우수율 80%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전역에 균등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읍, 아이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환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폐기물 재활용 제고 및 자원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등을 수거해 화장지 또는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생활 속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임실읍 관내 희망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폐건전지를 모아 새 화장지로 교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입주기업 경영 부담 완화

장수군은 내달 19일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물류비 지원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원자재 구입비와 택배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폐수처리비 지원은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업체와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수군은 6월 19일까지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적격 여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6-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이다.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사전 수요조사 참여 기업과 연매출액이 적은 영세기업, 물류비 비중이 높은 기업, 장기간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생명 존중 안심 공동체 만든다!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맞선' 자살 위기 주민 조기 발굴 대응-연계 활동 등 약속

무주군이 '온마을 생명 울타리' 조성 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7일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와 '생명 존중 안심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보건의로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위기 주민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협약식에는 자살예방관인 노창환 부군수를 비롯해 홍찬표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무주군보건의로원장), 이순희 새마을운

동무주군지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자살 위기 주민 조기 발굴 및 대응-연계 지킴이 활동과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협조, △자살 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사업 추진에 협력해 나갈 뜻을 확고히 했다.

특히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의 지역 밀착형 활동 역량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지원체계를 연계해, 마을에서부터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창환 부군수는 "경제가 어렵고 사회 환경이 각박해지면서 생명 경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전체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와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공사로 인한 지적기준점 망실 조사

도로개설·상하수도 정비 등 공사로 인해 훼손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복구 추진

임실군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로 인해 훼손되거나 망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확인과 분할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각종 공사 현장에서 굴착, 포장, 구조물 설치 등의 작업 과정 중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관내 설치된 도근점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의 망실 여부와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 또는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 및 재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준점 보호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공사 전·후 기준

점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거나 손괴 또는 망실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지적행정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각종 공사 시행 시 기준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 참가자 모집

청년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구 확대·지역 정착 기반 강화

장수군은 오는 31일까지 대학생 체류형 로컬 프로젝트인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는 대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관내 청년단체, 농가, 관광자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장수군과의 지속적 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락앤런 인턴십'과 '시무골 여름살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락앤런 인턴십'은 장수군 로컬기업인 '락앤런'이 운영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진행된다.



장수 락앤런 인턴십

<사진=장수군>

트레일러링·스포츠포광·로컬브랜딩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청년 2명을 모집한다.

또한 '시무골 여름살기'는 장수군 로컬단체 '예농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4박 15일간 번암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장수군과 협약을 맺은 목원대학교 학

생은 대상으로 7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락앤런 인턴십'은 구글폼(https://forms.gle/XVv7E4QKBK3rM323p7)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시무골 여름살기'는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모집·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6 임실N장미축제 개막

18만송이 장미꽃 향연

유럽의 이국적인 정취와 18만 송이 장미의 향연이 어우러진 '2026 임실N장미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한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약 6만5천㎡ 규모의 장미원에 150여종의 장미가만개해 다채로운 공연·체험·미식 콘텐츠를 결합한 임실군 대표 봄축제이다.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형형색색의 장미와 유럽풍 조형물이 어우러져 마치 유럽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임실N프로포즈 게임'은 오징어게임 콘셉트를 접목한 이색 서

바이벌 이벤트로 사전 선발된 커플 10개팀이 달고나 만들기, 임실N치즈피자 빨리 먹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최강 커플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미식 콘텐츠도 한층 강화했다. MBN 인기 프로그램 '천하제빵'과 연계한 특별 팝업스토어가 열리며 29일부터 3일간, 방송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김진서 파티시에가 임실N치즈를 활용해 직접 만든 임실 부라타 브레드를 시식할 수 있다.

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총2,100여 명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안전관리 인력과 교통·주차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청소년키움센터, 청소년 자치 운영 '호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표 성과

무주군 무주읍 청소년키움센터가 지역에 꼭 필요한 교육·문화 인프라이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대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운영 방식은 '농촌형 청소년 정책'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키움센터 관리위탁 운영을 맡은 무주문화기초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연간 1만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반장을 선출해 이용 질서와 운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청소년이 공간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운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곳의 자치 운영 방식은 책임감·협동

심·의사결정 경험을 동시에 키우는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충북연구원 유학열 선임연구위원과 일본 동경농공대학 우치노 료타 박사가 직접 키움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답사하며 공간 운영 구조와 지역 활성화 효과를 살폈다.

김종훈 무주문화기초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청소년키움센터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운영 원칙을 세우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성장의 공간"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며 미래의 지역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장애인 '어울림 슬런 대회' 성황리 개최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2일 '2026 장애인활성화프로그램 어울림 슬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는 '어울림 경기'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참가자들은 '장애는 생각입니다. 체육은 생활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승패를 떠나 우정과 화합을 다졌으며 생활체육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슬런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 '서플보드'라고도 불리며, 네 개의 홀이 있

는 폭 41cm·길이 2m 크기의 '슬박'에 나무 원반인 '푹(Puck)' 30개를 밀어 넣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는 '어울림 경기'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참가자들은 '장애는 생각입니다. 체육은 생활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승패를 떠나 우정과 화합을 다졌으며 생활체육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6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개막 앞두고 성공 개최 의지 다져

진안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6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행사'가 27일 진안군 일원에서 조직위원과 범군민참여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에서 처음 열리는 '2026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지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회 슬로건 합동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양대 체전 준비상황 보고, D-100 카운트다운 점등식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장 곳곳에는 대회 성공을 향한 기대와 열기가 가득했다.

정봉은 진안군체육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6 전북도민체전은 진안군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역량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천천면 최민식 이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천천면 최민식 이장이 지난 26일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최민식 이장은 지난 2023년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도 일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민식 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지역사회 온정 모여 어르신들께 건강식 후원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학성)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지역 내 저차 및 소화 능력 저하된 취약계층 어르신 21명을 대상으로 풍성한 건강식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강식 지원은 우양재단과 CJ제일제당이 함께하는 '2026년 어르신 영양죽 지원사업'에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지원에서는 치아 결손과 소화 기능 저하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통곡물 영양죽'을 제공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죽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이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 관내 '한오백년 추억담' 임실점'은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돕기 위해 추억담 말키트를 후원했으며, '임실군기초푸드뱅크'도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누룽지백숙을 지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NH농협 익산시지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적극 추진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는 지난 26일 지역 내 취약계층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망성농협 박명남 조합장과 NH농협 익산시지부 진현욱 지부장이 참석해 도배·장판 교체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협 임직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현욱 NH농협 익산시지부장 역시 "농업인을 위한 따뜻한 동행과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농심천심(農心天心)'의 마음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무원들, 녹차밭 찾아 구슬땀

정읍시 농소동과 세정과, 산림복지과 직원 30여 명이 지난 26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용계동 녹차 재배 농가를 찾아 찾았 수확에 힘을 보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농가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후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직원들은 넓은 녹차밭을 돌며 정성껏 찾았을 수확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아내고 주변 환경을 말끔하게 정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작업 중에는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깊이 있게 귀담아들으며 지역 주민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 사진작가협회,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행사

총 75가족 254명 참여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한재원)가 지난 25일과 오는 30일, 31일 고창읍성 일원에서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진 촬영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중한 가족의 추억을 남기고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사에는 총 75가족 254명이 참여

하며, 장애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주간이용시설·드림스타트·가족센터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한재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은 "가족사진이 참여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이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이웃사랑이 담긴 가족사진 촬영이 참여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서적 지원과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홍보축제실, 농촌 일손 돕기 추진

김제시는 홍보축제실 직원들이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금구면 소재 농가에 방풍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홍보축제실 직원들이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상추 재배를 위한 상토 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직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주의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며 일손을 보탤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홍보축제실 직원들이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직원들은 상추 재배를 위한 상토 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직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제일고,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서 금메달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한병기) 조리제빵과 학생 16명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6 KICC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등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내역은 △종합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최재훈, 이승희, 김세민, 권준서, 김예진, 김찬호, 조리제빵과 학생 16명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6 KICC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등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세민, 권준서, 김예진, 김찬호, 강수민, 정우석 학생, △라이브 코스요리 은메달 최강, 노영신, 박지현, 전진준, 박서준, 황형진, 조호정, 윤별하 학생이 수상했다.

16명 4명이 참가해 금메달 2명, 은메달 2명으로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했으며, 종합상으로 특별기관장인 종합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을 추가로 2명이 수상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 보석성광교회, 어르신들께 한방치료·이미용 봉사 펼쳐

군산시 임피면 보석성광교회는 지난 25일,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한방치료 및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회 성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방진료를 통한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비롯해 발마사지, 커트 및 간단한 이미용 서비스 등이 제공돼 어르신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석성광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고
▲ 김종원(전북타임스 남원 주재기자) 부친상

빈소 :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6년 5월 28일 오전 9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一事一言〉



‘민주당 아니면 고립’ 가스라이팅, 전북 정치 언제 자립하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난 26일 자 본지 1면에 실린 “민주당 아니면 전북고립...”이라는 기사의 제목은 서글프게도 지금 전북이 처한 정치적 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유령처럼 되살아나는 이 ‘고립론’은 전북도민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소외감과 공포를 자양분 삼아 기생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 중앙 무대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 우리 편을 지키지 못하면 지역 발전의 출대기마저 끊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이번 선거판에도 여지없이 배회하고 있다.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전북 고립’이라는 해묵은 협박에 시달리며 다른 대안을 상상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온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던 지난 세월 동안, 전북은 과연 고립에서 벗어났는가? 영남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혹은 호남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맹목적 구애를 보낸 결과가 진정한 지역 발전이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현실은 냉혹했다. 중앙 정치의 역할 관계 속에서 전북은 언제나 ‘잡은 물고기’ 취급을 받으며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기어이 다가온 선거 국면에서도 정책적 비전 대신 또다시 ‘고립’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그동안 전북 정치가 도민들에게 보여준 성적표가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반증하는 씁쓸한 자화상이다.

선거는 본래 지역을 살릴 최고의 인물과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벌이는 건강한 경쟁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북

의 선거판에서 ‘인물’과 ‘공약’은 실종된 지 오래며, 후보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후보는 한심한 관리 부실로 핵심 자료를 통째로 유출당해 놓고도 무기력한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는 제1야당의 탈린 자료를 그대로 주워다 쓰며 급조된 대안을 내세우는 불쌍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정책적 깊이나 전북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간판만 달면 당선’이라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만 가득하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집단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러한 ‘일당 독점 체제’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지역 정치인들의 하향 평준화와 중앙 정치로의 철저한 예측화다. 전북의 유권자들이 아무리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도, 민주당 지도부의 시선은 늘 표가 흔들리는 수도권이나 외연 확장이 필요한 타 지역만을 향한다. 전북의 정치인들 역시 도민의 삶을 살피고 국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발로 뛰기보다는, 중앙당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공천 출대기에 안달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도민들이 만들어준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정작 전북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영달과 중앙당의 세 대결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한 셈이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 침체라는 전북의 생존 위기 앞에서도 우리 정치권이 이토록 무기력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아니면 고립된다’는 프레임

은 전북 정치의 자생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전북은 영원히 정치적 변방이자 종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자립은 공포 마케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정치적 선택권을 행사할 때 시작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제3의 대안 세력이든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언제든 매를 들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어야만 중앙 정치권도 전북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민주당 역시 오만한 독점에서 벗어나 혁신과 경쟁에 나설 것이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전북 정치가 낡은 진영 논리와 고립의 공포를 깨부수고 당당한 ‘정치적 자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맹목적인 예측의 굴레에 머무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유권자인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당의 색깔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 전북을 살리는 것은 맹목적인 ‘의리’가 아니라, 냉철한 ‘견제와 실리적 선택’이다. 언제까지 공포에 저당 잡힌 정치를 후대에 대물림할 것인가. 이제 전북 정치의 진짜 주인은 도민 자신임을 엄중한 표표서 증명해야 할 때다.

오늘의시

그리운 남쪽 / 곽재구

그곳은 어디인가
바라보면 산모퉁이
눈물처럼 진달래꽃 피어나던 곳은

우리가 매듭 묶은 손을 모아
여어이 여어이 부르던
여어이 여어이 눈물 섞인 구름으로
피맺힌 울음들이 되살아나는 그곳은
돌아보면 날 저물어 어둠이 깊어

홀로 누워 슬픔이 되는 그리운 땅에
오늘은 누가 정 깊은
저 뜨거운 목마름을 던지는지
아느냐 젊은 시인이여

눈뜨고 흰이 보이는 백일의
이 땅의 어디에도
가을바람 불면 가을바람 소리로
봄바람 일면 푸른 봄바람 소리로

강물이 꽃고추
눈 속의 겨울 애벌레와도 같은
죽지 않는 이 땅의 서러운 힘들이
저 숨죽인 그리움의 밀물소리로
우리 쓰러진 가슴 위에
피어나고 있음을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사설

‘민주당 아니면 고립’...전북 민심의 역풍 부르나

전북 정치 지형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타임스가 보도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앞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단순한 지지율 수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전북 정치에서는 민주당 공천 자체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 흐름은 도민 민심이 더 이상 정당 이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공천과 제명, 형평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느낀 감정이다. 누구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누구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듯한 모습, 중앙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 지역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천 과정에 대한 피로감이 누

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민심은 투표를 통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그 지지가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도민들은 특정 정당의 ‘고정 지지층’ 이전에 지역의 미래와 자존심을 판단하는 유권자다. 공천이 곧 민심이라는 오만, 당의 결정이 무조건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함은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현상이 단순한 일회성 반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정당 간판보다 인물과 행정 능력, 공정성과 과정의 정당성을 더 따지기 시작했다. 정치가 민심 위에 군림하려 하면 결국 민심은 다른 선택으로 답한다. 이번 여론조사가 전북 정치권에 던지는 경고음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독자투고

산행의 즐거움, 안전수칙에서 시작됩니다



등산은 가장 익숙한 여가활동 중 하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산으로 향하는 시기가 되면 구조 요청도 함께 늘어났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산악사고 신고는 꾸준히 이어진다. 국토 대부분이 산인 우리나라에서

산에 오르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 비나 강풍으로 체감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얇은 바람막이와 충분한 물, 간단한 비상식량만 챙겨도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고 보조배터리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후대전화 전원이 꺼져 위치 확인이 늦어지는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익숙함은 때때로 방심으로 이어진다. 가벼운 산책처럼 산에 올랐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마주한다. “잠깐 다녀오겠다”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거나 체력이 떨어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조 활동 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을 때다. 셋길이나 비공식 탐방로는 가가귀귀 보일 수 있지만 방향을 잃기 쉽고 구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길이 낯설다고 느껴진다면 더 돌아가기보다 왔던 길로 되돌아오는 판단이 필요하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10분의 준비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체력과 경험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무리한 산행은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구조 상황에서도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행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목적지와 예상 하산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정보 하나가 위급 상황에서는 구조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망설이지 않는 일이다. 몸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위치를 잃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주변 국가지점번호를 함께 알려준다면 구조대가 훨씬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기상 상황과 등산 코스를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은 평지와 기상이 달라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해가 지거나 능

중분한 준비와 올바른 판단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다. 안전한 산행문화가 일상이 되어 모두가 웃는 얼굴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전주덕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최규영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지사 010-98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8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익산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842-8502 |
| 고창지국 010-2258-3734 | 진안지국 010-9560-3075 | 진원지국 010-2433-1721 |
| 완주지국 010-3672-0308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826-6049 |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정읍시 '지속 가능 탄소중립·기후안심 도시' 실현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노후차 저감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5개년 로드맵 구축

정읍시가 기후 안심 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27대를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 500대를 민간에 보급해 도심 속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부터 체계적인 중장기 재난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선연적 구조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

(편집자주)

■ 도심 누비는 친환경 이동 수단 500대...택시·화물차 우선 배정
정읍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 전기 및 수소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전기승용차 283대, 전기 화물차 137대, 수소전기차 5대, 전기 승합차 2대, 전기이륜차 8대 등 435대의 보급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40대, 전기화물차 83대, 수소전기차 20대 등 총 243대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했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전기승용차 160대, 전기화물차 67대, 수소전기차 30대 등 총 257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보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보급을 넘어 '전략적 배분'을 시

행한다. 주행거리가 길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택시와 소상공인의 발이 되는 택배용 화물차에 별도 물량을 배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소음과 매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달용 이륜차를 교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10대)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기반시설도 곧 모습을 드러낸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연말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 위주의 도로 환경을 저탄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대규모 감축...혁신적인 전동화 전환 도입
시는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올해는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약 12억 5820만 원을 투입해 총 627대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비롯해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포함된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49대 규모로 병행 운영한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27대)와 더불어, 전국적인 환경 흐름(트렌드)에 발맞춘 ▲건설기계 및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14대)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낡은 엔진을 신형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전기 동력으로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혁신적인 저감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 10년 치 기상 자료 분석...재난 견디는 체계적 기후 적응 대책 수립
시는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기후 변화에 강한 도시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2026~2030)의 실행 전략인 '제3차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획은 정읍시민의 기후 특성과



취약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 10년 이상의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정읍의 보건, 재난, 농업, 물관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30여 개의 이행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2025~203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실현할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기후위기 변화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시청 내부 조직부터 솔선수범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행정이 먼저 녹색 소비에 앞장서야 민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 목표를 23.06%로 높여 잡았다. 지난해 달성 목표였던 21.4%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전 부서가 소통하며 환경표지인증이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물품 구매를 늘려가고 있다.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비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가 발주하는 관공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까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쓰도록 유도했다. 공공 부문의 구매력이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 내 녹색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읍시가 쏟아내는 이 모든 정책의 종착지는 결국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앞

으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기후 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녹색 문화를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릴 방침이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전기차 보급과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부터 과학적인 기후 적응 전략 수립까지 촘촘하게 실행해 시민들이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올해 수립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추진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환경 사업 규모를 한층 키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다. /정읍=김정민 기자

